

Session 17 Defining True Discipleship (Mk. 7-9; Mt. 15-17)

제 17 강 진정한 제자도의 정의 (막 7-9 장; 마 15-17 장)

I. INTRODUCTION

도입

- A. In these passages, Jesus presented the nature of true discipleship. He exposed errors about food laws (Mk. 7:1-5) and how the Pharisees exalted tradition over the Scripture (Mk. 7:15-23). He explained what defilement is (Mk. 7:15-23), then healed the Syrophenician demoniac and a deaf man (Mk. 7:24-37). He fed 4,000 people and exposed the disciples' hardness of heart (Mk. 8:1-21). He healed a blind man just before Peter declared that Jesus was the Christ (Mk. 8:22-30). Next, He prophesied His death and then spoken directly on discipleship (Mk. 8:31-9:1). These events occurred in Galilee, Tyre and Sidon (Phoenicia), and Decapolis in the spring and summer of AD 29.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 그분은 음식 결례에 있는 오류를 드러내셨으며 (막 7:1-5),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 위에 전통을 앞세운 것을 보여주셨다 (막 7:15-23). 그분은 무엇이 더러워지는 것인지를 설명하셨으며 (막 7:15-23), 수로보니게의 귀신들리고 귀머거리된 사람을 고치셨다 (막 7:24-37). 그분은 4,000 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셨다 (막 8:1-21). 그분이 눈먼 자를 고치신 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 (막 8:22-30). 다음으로, 그분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예언하신 후 제자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마 8:31-9:1). 이 사건들은 갈릴리, 두로, 시돈 (페니키아),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일어났으며 AD 29 년 봄과 여름의 일들이다.

- B. In the first two years of Jesus' ministry, He taught the multitudes many different truths about the nature of God and the kingdom of God. In the last year of His ministry, He focused on revealing to the apostles who He was as Messiah and the nature of discipleship. Helping the disciples to gain spiritual understanding—being healed of spiritual blindness was a primary theme in Mark 6-10.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2년에서, 그분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분은 사역 마지막 해에 제자들에게 그분이 메시아이며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다. 마가복음 6-10장의 주요 주제는 제자들이 영적인 이해를 가지도록 도우신 것, 즉 영적으로 눈 먼 것을 고치신 부분이다

II. JESUS EXPOSED ERRORS RELATED TO BEING CLEAN (MK. 7:1-23)

예수님께서 정결에 대한 오류를 드러내심 (막 7:1-23)

- A. Jesus exposed errors in the Pharisees' application of food laws (Mk. 7:1-5; cf. Mt. 15:1-2). The leaders in the early church debated on how to apply the food laws found in the law of Moses.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의 음식 율법을 적용에 있는 오류를 드러내셨다 (막 7:1-5; 비교. 마 15:1-2). 초대 교회 리더십들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논쟁했다.

¹Then the Pharisees... came together to Him, having come from Jerusalem. ²Now when they saw some of His disciples eat bread with defiled, that is, with unwashed hands, they found fault. ³For the Pharisees...do not eat unless they wash their hands in a special way... ⁴When they come from the

marketplace, they do not eat unless they wash. And there are many other things which they have received and hold, like the washing of cups, pitchers, copper vessels, and couches. ⁵Then the Pharisees and scribes asked Him, “Why do Your disciples not walk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but eat bread with unwashed hands?” (Mk. 7:1-5)

¹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²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³ (바리새인들 ...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닢그릇을 씻음이라) ⁵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막 7:1-5)

1. This is the second time that a delegation of leaders came from Jerusalem to investigate Jesus (Mk. 3:22).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들을 두 번째로 보냈다 (막 3:22).

2. This conflict was not about the disciples' hygiene, but their refusal to embrace religious purification rituals before eating. The Pharisees washed after visiting the marketplace to remove the spiritual defilement they claimed to have received by their contact with Gentiles.

이 충돌은 제자들의 위생문제가 핵심이 아닌, 제자들이 먹기 전에 행해야 하는 종교적인 정결 의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돌아온 이후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을 제거하기 위해 손을 씻었었는데, 이방인과의 접촉으로 인해 더러워졌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 B. The tradition of the elders was the oral interpretation of the Mosaic law that was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y regarded these traditions as commands from God. In AD 200, the rabbis compiled these “laws” into the Mishnah, which became the basis for the Talmud (AD 425).

장로들의 유전(전통)은 모세 율법에 대한 구전 해석을 말하며, 세대를 거쳐 전달된 것이었다. 그들은 이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주했다. AD 200 년에 랍비들은 이 “율법들”을 미쉬나(Mishnah)로 엮었고, 이는 탈무드의 기반이 되었다 (AD 425).

⁶He...said to them, “Well did Isaiah prophecy of you hypocrites, as it is written: ‘This people honors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⁷And in vain they worship Me, teaching as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⁸For laying aside the commandment of God, you hold the tradition of men—the washing of pitchers and cups, and many other such things you do.” (Mk. 7:6-8)

⁶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⁷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⁸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막 7:6-8)

- C. Jesus accused the scribes of disregarding God's command to honor parents by neglecting to care for their parents in their old age (Ex. 20:12; Deut. 5:16).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들이 노년의 부모들을 돌보지 않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셨다.

¹⁰For Moses said,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¹¹But you say, “If a man says to his father or mother, ‘Whatever profit you might have received from me is Corban’” (that is, a gift to God), ¹²then you

no longer let him do anything for his father or his mother, ¹³*making the word of God of no effect through your tradition...And many such things you do.* (Mk. 7:10-13)

¹⁰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 ¹¹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¹²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¹³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막 7:10-13)

1. **Corban:** This came from a Hebrew word meaning “a gift dedicated to God.” It involved a solemn vow to dedicate money or property to God. This put the offering under a strict ban so that it could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not even the support of their aged parents.

고르반: 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재정이거나 재산을 드리겠다는 서언도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했으며, 나이든 부모를 섬기는 일에도 사용할 수 없었다.

2. **Many such things:** The Corban vow was one of many ways that they manipulated the law.

이 같은 일을 많이: 이 고르반 서원은 그들이 율법을 이용해먹은 많은 예 중의 하나였다.

- D. Jesus explained how a person is defiled or made unclean (Mk. 7:14-23). He exposed how the Pharisees exalted their traditions over Scripture. Christians are not mandated by Scripture to observe the dietary laws in the law of Moses (Acts 10:9-17; 11:5-10; Rom. 14; 1 Cor. 8; Gal. 2:11-17; Col. 2:20-23). Paul declared that Jesus terminated that aspect of the Mosaic Law (Rom. 10:4).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어떻게 더러워지고 불결해지는지를 설명하셨다 (막 7:14-23).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말씀 위에 두는 것을 드러내셨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율법에 있는 음식 관련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행 10:9-17; 11:5-10; 롬 14; 고전 8; 갈 2:11-17; 골 2:20-23).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의 이 부분을 폐하셨음을 선포했다 (롬 10:4).

¹⁴...and [Jesus] said to them, “Hear Me, everyone, and understand: ¹⁵There is nothing that enters a man from outside which can defile him; but the things which come out of him, those are the things that defile a man... ²¹For from within, out of the heart of men, proceed evil thoughts, adulteries, fornications, murders, ²²thefts, covetousness, wickedness, deceit, lewdness, an evil eye... ²³All these evil things come from within and defile a man.” (Mk. 7:14-23)

¹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¹⁵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²¹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²²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²³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막 7:14-23)

1. Jesus clarified what causes uncleanness—common foods do not. Jesus was not speaking medically or physiologically, but in terms of Israel honoring the food laws given by Moses.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를 명확히 말씀하셨으며, 일반적인 음식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의학적,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받은 음식 율법을 따르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2. Moses taught laws related to remaining separate from various foods that the Gentiles ate. These laws taught and symbolized the value of purity or the separation of their heart to God. These food laws in themselves did not impart purity to the heart. They were merely types and shadows and not the substance of purity (Heb. 10:1). These types were fulfilled in Christ.

모세는 이방인들이 먹었던 다양한 음식으로부터 분리되라고 가르쳤다. 이 율법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정결히 지키거나 구별하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가르친 것이었다. 이 음식 율법 그 자체가 마음에 정결함을 부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것들은 정결함에 대한 전형이자 그림자였을 뿐, 정결함의 본질은 아니었다 (히 10:1).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 E. Jesus healed the Syrophenician demoniac (Mk. 7:24-30; cf. Mt. 15:22-28). Jesus withdrew to Tyre located on the Mediterranean coast about 35 miles from Capernaum. Jesus went to this Gentile region immediately after teaching that all foods are clean to show that all people are clean! Matthew added that Jesus declared that the woman's faith was great (Mt. 15:28).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계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막 7:24-30; 비교. 마 15:22-28).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으며, 이곳은 가버나움에서 35 마일 (약 55km) 떨어진 지중해 해안 지역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함을 가르치신 직후 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결함을 보여주신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을 선포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마 15:28).

²⁴From there He...went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²⁵A woman whose young daughter had an unclean spirit...came and fell at His feet. ²⁶The woman was a Greek, a Syro-Phoenician by birth, and she kept asking Him to cast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²⁷But Jesus said to her, "Let the children be filled first, for it is not good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hrow it to the little dogs."²⁸And she answered..., "Yes, Lord, yet even the little dogs...eat from the children's crumbs."²⁹He said..., "For this saying go your way; the demon has gone out of your daughter." (Mk. 7:24-29)

²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²⁵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 그 발 아래 엎드리니 ²⁶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계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²⁷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²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웁소이다라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²⁹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막 7:24-29)

²⁸ Jesus answered and said to her, "O woman, great is your faith!" (Mt. 15:28)

²⁸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마 15:28)

III. THE FEEDING OF THE 4,000 (MK. 8:1-10)

4,000 명을 먹이심 (막 8:1-10)

- A. Jesus fed 4,000 people at Decapolis—a Gentile region east of the Sea of Galilee (Mk. 8:1-9; Mt. 15:32-38). When He fed the 5,000, it spoke of His care for Jewish people (Mk. 6:34-44); and here in feeding the 4,000, He showed His heart for Gentiles instead of seeing them as unclean.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에서 4,000 명을 먹이셨으며, 이곳은 갈릴리 바다 동쪽의 이방인 지역이었다 (막 8:1-9; 마 15:32-38). 그분이 5,000 명을 먹이셨을 때, 그분이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막 6:34-44). 여기에 4,000 명을 먹이신 일에서는, 그분은 이방인들을 불결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보이신다.

¹...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said to them, ²“I have compassion on the multitude, because they have now continued with Me three days and have nothing to eat.” ³And if I send them away hungry...they will faint on the way; for some of them have come from afar.” ⁴Then His disciples answered..., “How can one satisfy these people with bread here in the wilderness?” ⁵He asked them, “How many loaves do you have?” And they said, “Seven.”... ⁶He took the seven loaves...broke them and gave them to His disciples...and they set them before the multitude... ⁸So they ate and were filled, and they took up seven large baskets of leftover fragments. ⁹Now those who had eaten were about four thousand. (Mk. 8:1-9)

¹...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²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³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⁴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⁵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⁶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⁸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⁹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던라 예수께서 그들을 흠어 보내시고 (막 8:1-9)

- B. Just before He fed the 5,000, Jesus asked His disciples the same question about how many loaves they had (Mk. 6:38). This very question should have reminded the disciples that Jesus could easily multiply bread to provide for this great need. Jesus' provision was again very abundant (Mk. 8:9).

그분이 5,000 명을 먹이시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 (막 6:38). 이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음식을 증가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기억나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넘치도록 공급하셨다 (막 8:9).

IV. THE PHARISEES DEMANDED A SIGN IN THE SKY (MK. 8:10-12)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함 (막 8:10-12)

- A. The Pharisees demanded a sign in the sky to test Jesus (Mk. 8:11-12; cf. Mt. 16:1-4). This happened after Jesus crossed to the west side of the sea to Dalmanutha or Magdala (Mk. 8:10; cf. Mt. 15:39).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 (막 8:11-12; 비교. 마 16:1-4). 이 일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인 달마누다 혹은 막달라로 건너가신 직후 일어났다 (막 8:10; 비교. 마 15:39).

¹⁰... [Jesus] got into the boat with His disciples, and came to the region of Dalmanutha. ¹¹Then the Pharisees came out and began to dispute with Him, seeking from Him a sign from heaven, testing Him. ¹²But He sighed deeply in His spirit, and said, “Why does this generation seek a sign? Assuredly, I say to you, no sign shall be given to this generation.” (Mk. 8:10-12)

¹⁰...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¹¹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¹² 예수께서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막 8:10-12)

- B. Matthew added that Jesus would give them only the sign of Jonah—Jesus' resurrection (Mt. 16:4).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실 것은 요나의 표적, 즉 부활하심 밖에 보일 것이 없음을 기록하고 있다 (마 16:4).

⁴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seeks after a sign, and no sign sha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Mt. 16:4)

⁴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 16:4)

- C. Jesus warned about error of the Pharisees and Herod (Mk. 8:13-21; cf. Mt. 16:5-12). Jesus crossed the sea returning to the east side (near Bethsaida). He exposed the disciples' hardness of heart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가진 오류에 대해 경고하셨다 (막 8:13-21; 비교. 마 16:5-12).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건너오셨다 (베데스다 근처). 그분은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

¹³And He...and getting into the boat again, departed to the other side. ¹⁴Now the disciples had forgotten to take bread, and they did not have more than one loaf with them in the boat. ¹⁵Then He charged them, saying, “Take heed,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and the leaven of Herod.” ¹⁶And they reasoned among themselves, saying, “It is because we have no bread.”

¹⁷But Jesus...said to them, “Why do you reason because you have no bread? Do you not yet perceive nor understand? Is your heart still hardened?” ¹⁸Having eyes, do you not see?

And having ears, do you not hear? And do you not remember? ¹⁹When I broke the five loaves for the five thousand, how many baskets full of fragments did you take up?” They said to Him, “Twelve.”

²⁰“Also, when I broke the seven for the four thousand, how many large baskets...

did you take up?” They said, “Seven.” ²¹So He said..., “How is it you do not understand?” (Mk. 8:13-21)

¹³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¹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¹⁵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¹⁶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¹⁷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¹⁸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¹⁹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²⁰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²¹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막 8:13-21)

- D. The disciples were corrected several times for “hardness of heart” (Mk. 6:52; 8:17; 16:14). This does not speak of them being rebellious, but of not properly esteeming the things that God had said or did before their very eyes—not laying hold of the implications of divinely orchestrated events set before them. By the two feeding miracles, Jesus intended them to understand that He was God.

제자들은 일곱 번이나 “마음의 둔함, 굳어짐, 완악함”에 대해 교정을 받았다 (막 6:52; 8:17; 16:14). 이는 그들이 그분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나 그들 앞에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두 번의 음식과 관련된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나님임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 E. I often review the “God story” in my life—individually and corporately. Our “God story” consists of the times He intervened in both subtle and overt ways. How He gave me promises, provision, direction, and protection. They are like “pearls” from heaven that we are to call to remembrance. We can lose sight of the “God story” in our life in the midst of the “noise” in our life. We must identify those pearls—they only come occasionally. Write them down and say them back to God.

It causes gratitude and confidence to rise in us and helps us walk in the “God story” in our life.

나는 가끔 내 삶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곤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분이 미묘하게 행하시거나 명백하게 행하셨던 일들이 있다. 그분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으며, 내게 어떻게 공급해 주셨으며,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보호하셨는지의 부분들이다. 이들은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주들”과 같아서,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삶에 가득한 “소음”의 한 중간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 우리는 이 진주들을 잘 기억해야 하며, 이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일들에 대해 글로 써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라.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감사와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걸어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V. PETER’S CONFESSION OF JESUS AS SON OF GOD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A. Peter declared that Jesus was the Christ (Messiah), the very Son of God (Mk. 8:27-30; cf. Mt. 16:13-20; Lk. 9:18-21). This happened while walking between towns near Caesarea Philippi (a Roman city at the base of Mt. Hermon, 25 miles from Bethsaida) in the summer of AD 29.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막 8:27-30; 비교. 마 16:13-20; 눅 9:18-21). 이 일은 AD 29 년의 여름에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 자락의 로마 도시, 베데스다에서 25 마일, 40km 떨어진) 근처 마을 사이를 거닐 때 일어난 일이다.

²⁷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ut to the towns of Caesarea Philippi; and on the road He asked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Who do men say that I am?” ²⁸They answered, “John the Baptist; but some say, Elijah; and others, one of the prophets.” ²⁹He said to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Peter answered and said to Him, “You are the Christ.” (Mk. 8:27-29)

²⁷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²⁸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²⁹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막 8:27-29)

¹⁶Simon Peter answered and sai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Mt. 16:16)

¹⁶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

- B. **Christ:** The English word “Christ” is the English transliteration of the Greek “*christos*” that comes from the Hebrew word “*mashiach*” which is translated in English as “messiah” or “anointed one.”

그리스도: 영어 단어인 “그리스도 (Christ)”는 헬라어인 “크리스토스 (*christos*)”의 영어 번역이며, 히브리어 “마시아크 (*machiach*),” 즉 영어로 “메시아 (messiah)” 또는 “기름부음 받은 자”로 번역되는 단어에서 온 것이다.

- C. The apostles did not understand what kind of Messiah Jesus was—a suffering and dying Messiah. They were looking for a victorious, conquering king to liberate Israel from the oppression of Rome. Peter’s confession was accurate but inadequate—not understanding He must die to redeem Israel.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지, 즉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실, 승리하며 정복하는 왕을 구하고 있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했지만, 적합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 D. Jesus gave His first prediction of His death in Caesarea (Mk. 8:31-33; cf. Mt. 16:21-23; Lk. 9:22). We see the disciples’ reaction to it (8:32-33). This is the first of Jesus’ three predictions of His death and resurrection (Mk. 8:31-33; 9:30-32; 10:32-34) and His return (Mk. 8:38; 13:26; 14:62).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죽으실 것을 가이사라에서 처음으로 예언하셨으며 (막 8:31-33; 비교. 마 16:21-23; 눅 9:22), 우리는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8:32-33).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막 8:31-33; 9:30-32; 10:32-34), 그리고 다시 오실 것(막 8:38; 13:26; 14:62)에 대해 예언하신 총 세 번 중에 첫 번째였다.

³¹And He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and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be killed, and after three days rise again. ³²He spoke this word openly. Then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³³But when He had turned around and looked at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saying, “Get behind Me, Satan! For you are not mindful of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Mk. 8:31-33)

³¹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³²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³³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막 8:31-33)

- E. **Began:** He “began to teach,” implying that the teaching about His death was new to them.

비로소 ... 가르치시되: 그분은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 F. **Jesus rebuked Peter:** Jesus called Peter “Satan” because He saw Satan as the ultimate source of Peter’s exhortation. Peter’s way of thinking was totally contrary to God’s will.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심: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베드로가 한 말의 가장 근원에 사탄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사고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였다.

VI. THE COST OF DISCIPLESHIP (MK. 8:34-9:1)

제자도의 대가 (막 8:34-9:1)

- A. Jesus defined the nature of true discipleship (Mk. 8:34-9:1; cf. Mt. 16:24-28; Lk. 9:23-27). He now explained that suffering was not something that only He must embrace, but the disciples also must embrace it. Jesus contrasted the person who seeks to save their natural life through denying Jesus and the one who endured persecution, even death, because of their commitment to Him (8:35).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제자도의 속성을 정의하셨다 (막 8:34-9:1; 비교. 마 16:24-28; 눅 9:23-27). 그분은 이제 고난이 그분만 짊어지셔야 하는 것이 아닌, 제자들도 짊어져야 하는 부분임을 설명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이와, 그분을 향한 헌신으로 핍박과 죽음까지도 견디는 이를 대조하셨다 (8:35).

³⁴When He had called the people to Himself, with His disciples also, He said to them, “Whoever desir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³⁵For whoever desir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will save it. ³⁶For what will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loses his own soul? ³⁷Or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³⁸For whoever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adulterous and sinful generation, of him the Son of Man also will be ashamed when He comes in the glory of His Father...”^{9:1}He said to them, “Assuredly...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til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present with power.”
(Mk. 8:34-9:1)

³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³⁵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³⁶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³⁷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³⁸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¹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막 8:34-9:1)

- B. **The people:** Jesus called “the people” because this teaching was not only for the apostles, but for all who follow Him. He spoke of disciples as any who seek to “come after” or “follow” Jesus.

무리: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를 부르셨는데, 이는 이 가르침이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들로 말씀하셨다.

- C. **Deny himself:** To deny ourselves speaks of placing God’s plans, values, and ways above our own. It is not a call to rigorous asceticism, self-hatred, or seeking ways to punish ourselves for our failures. It is a call to embrace Jesus’ leadership in our life and renounce assuming the primary leadership over our life. It is to embrace God’s will over self-will and to resist sinful attitudes and actions. Self-denial includes giving up all that stands in the way of God’s will.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가치, 그분의 길을 우리 자신의 것들 위에 두는 것이다. 이는 엄격한 금욕주의나, 자기 혐오, 또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 자신을 벌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삶에 대해 예수님이 리더, 주인이 되심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이며,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최악된 행동 방식을 거절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 D. **Follow Me:** This involves publicly taking a stand for Him, His purposes, and His ways—this involves bearing stigma before others who despise His leadership and may involve physical death.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분의 목적과 길, 그분의 편에 서 있음을 나타냄을 말하며, 그분의 주권을 멸시하는 다른 이들 앞에서 수치를 견디는 것도 포함한다.

- E. **Save his life:** Jesus used the word life (Gr. psyche) in two ways. The first use of life in each clause speaks of our physical life, and the second use refers to the person we are in the age to come.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목숨(헬라어 프시케, psyche)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셨다. 각 구절에서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말하며,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장차 올 시대의 우리를 말한다.

1. Similarly, “to lose life” is used two ways. In the first clause, it speaks of the loss of eternal reward (for believers) or the loss of eternal life that was freely offered to unbelievers.

비슷하게, “목숨을 잃는 것”도 두 가지로 쓰였다. 첫 번째 절에서는 (성도가)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값 없이 얻을 수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잃음을 말한다.

2. In the second clause, it means the loss of physical life. Jesus was saying that if a person refuses to yield to His leadership by controlling their own life in this age, they will suffer the loss of something far more valuable in the future.

두 번째 구절에서는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이생의 삶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기를 거절하면, 그들은 미래에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3. However, if a person releases the control of their life to follow Jesus’ leadership, they will gain something of far greater value.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권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얻게 된다.

- F. Matthew added that Jesus will reward people in the age to come for their faithfulness (Mt. 16:27).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장차 올 시대에 사람들의 충성됨에 대해 상급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다 (마 16:27).

²⁶For what profit is it to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loses his own soul?... ²⁷For the Son of Man will come in the glory of His Father...He will reward each according to his works. (Mt. 16:25-27)

²⁶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 ²⁷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6:25-27)

VII. THE TRANSFIGURATION: THE GLORY OF THE SON (MK. 9:2-8)

변화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막 9:2-8)

- A. Jesus’ transfiguration foreshadowed His returning in glory at His second coming (Mk. 9:2-13; cf. Mt. 17:1-13; Lk. 9:28-36). Most agree that the transfiguration occurred on Mt. Hermon (over 9,000 feet above sea level) about 12 miles north of Caesarea Philippi. Jesus’ statement that some would see the kingdom of God with power (Mk 9:1) was fulfilled in the transfiguration (Mk. 9:2-8).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은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준다 (막 9:2-13; 비교. 마 17:1-13; 눅 9:28-36).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변화하신 것이 험몬산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동의하며 (해발 9,000 피트, 약 2700m 높이), 이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북쪽으로 12 마일 (약 20km) 떨어진 곳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막 9:1) 변화산에서 성취되었다 (막 9:2-8).

¹And He said to them, “Assuredly, I say to you that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til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present with power.”²Now after six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and led them up on a high mountain apart by themselves; and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³His clothes became shining, exceedingly white...⁴Elijah appeared to them with Moses...⁵Peter...said to Jesus, “...let us make three tabernacle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⁷And a cloud ...overshadowed them; and a voice came out of the cloud,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Hear Him!” (Mk. 9:1-7)

¹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² 열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³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⁵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⁷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막 9:1-7)

²⁹...the appearance of His face was altered, and His robe became white and glistening.
³⁰And behold, two men talked with Him...³¹ spoke of His decease...at Jerusalem. (Lk 9:29-31)

²⁹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³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³¹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눅 9:29-31)

- B. **Moses and Elijah:** Moses represented the law of Moses, and Elijah the prophets—they validated Jesus as Messiah and the necessity of His death. This experience proved that God’s favor was still on Jesus and His messianic mission and reassured the apostles that Jesus’ soon-coming death fulfilled God’s plan, and it would encourage them to be faithful in their future persecution. God commanded them to “Hear Him”— as having more authority than Moses and Elijah—especially Him teaching about His death and their need to also embrace the cross in following Him.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모세의 율법을 나타내며, 엘리야는 선지자를 나타내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죽으셔야 함을 알려준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예수님과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임무 위에 있으며,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임을 사도들에게 확신시켜주었고, 그들이 다가올 핍박에서도 충성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격려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며, 이는 그분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권위가 있으시며,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 가르친 것과, 그분을 따르기 위해 그들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에 권위를 두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었다.

- C. The second prediction of His death was on the road to Capernaum (Mk. 9:30-32; cf. Mt. 17:22-23; Lk. 9:43-45). Jesus took a secret trip thru Galilee. Again they failed to understand what He meant.

그분이 죽으심에 대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였다 (막 9:30-32; 비교. 마 17:22-23; 눅 9:43-45). 예수님께서서는 비밀스럽게 갈릴리를 지나셨다.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³⁰*Then they departed...and passed through Galilee...³¹He taught His disciples and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being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and they will kill Him.” (Mk. 9:30-31)*

³⁰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³¹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막 9:30-31)

D. The debate about who was the greatest (Mk. 9:33-50; cf. Mt. 18:1-14; Lk. 9:46-50).

누가 가장 큰 자인지에 대한 논쟁 (막 9:33-50; 비교. 마 18:1-14; 눅 9:46-50).

³³...“*What was it you disputed among yourselves on the road?”³⁴But they kept silent, for on the road they had disputed among themselves who would be the greatest.³⁵And He...said to them, “If anyone desires to be first, he shall be last of all and servant of all.” (Mk. 9:33-37)*

³³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³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³⁵ 예수께서 ...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막 9:33-37)

E. True disciples of Jesus must be prepared for the real choices involved in fully following Jesus. Jesus addresses the wisdom of removing anything that hinders our faithfulness to Him (Mk. 9:42-50). Many sacrifices in the Old Testament were offered to God with salt (Lev. 2:13). Jesus spoke of a “salt-sacrifice” when speaking of the sacrifices required at times in faithfully loving and obeying Him. The disciples must be seasoned with salt, like a living sacrifice offered to God (Rom. 12:1). In following Him, Jesus boldly called His disciples to sacrifice money (Mk. 10:21), relationships (Mk. 10:28), their life (Mk. 8:34f), and here the complete sacrifice of the sinful activity of the body.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인 선택들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께 충성되기 위해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지혜를 말씀하셨다 (막 9:42-50). 구약의 많은 제물들은 소금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다 (레 2:13). 예수님께서서는 “소금 제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분을 충성되게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때 필요한 희생을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소금으로 쳐져야 했으며,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다 (롬 12:1).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따름에 있어, 재정 (막 10:21), 관계 (막 10:28), 그들의 생명 (막 8:34f)을 희생해야 함을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여기서는 몸의 죄악된 행위에 대한 완전한 희생을 드릴 것을 담대히 말씀하신다.

⁴³*If your hand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into life maimed, rather than having two hands, to go to hell, into the fire that shall never be quenched...⁴⁹For everyone will be seasoned with fire, and every sacrifice will be seasoned with salt. (Mk. 9:43-49)*

⁴³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⁴⁹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막 9:43-49)

⁴³ 네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 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⁴⁹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제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한글 KJV, 막 9:43-49)